

사회

2011 수능 영역별 출제 방향

수리 단답형 문항 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2011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 계획을 통해 "언어 및 외국어(영어)는 여러 교과와 관련된 비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고 밝혔다.

Table with 2 columns: Year (2011), Exam Type (수능), and Details (시험 기출문제 발표, 시험 세부계획 공고, 원시 교무 및 접수, 시험일, 문제 출제 및 시험 감독, 문제 출제 및 시험 감독, 채점, 성적 발표).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 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문항 형태는 5지선다형이고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와 외국어는 1, 2, 3점, 수리는 2, 3, 4점, 탐구는 2, 3점, 제2외국어·한문은 1, 2점이다.

에서 뽑아 독서체질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다음은 평가원이 밝힌 영역별 출제 방향.

◇언어=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며,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출제한다.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독서체질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

◇수리=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정(초1~고1)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뿐 아니라 수학 I 또는 수학 II의 내용과도 통합해 출제한다.

◇외국어(영어)=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 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해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원어문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안정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해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하고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출제한다.

수능 영역별 문항수·출제 범위

Table with 3 columns: 구분영역, 문항수, 출제범위(선택과목). Rows include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출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재수생 학원 모의수능 다시 허용

6월 모의고사부터

지난해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의 사전유출 이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된 사실학원의 수능 모의평가 배제 방침이 백지화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과 9월2일 두 차례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고교 3학년생은 해당 학교, 재수생은 전국 200여개 학원에서 치른다. 6월 모의수능을 볼 수 있는 학원은 4월1일 공고되며 같은 달 5~15일 응시 신청을 받는다.

가 EBS 외주 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올해 6월 모의수능 때부터 학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은 이 방안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의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수능 때는 수험생을 제외한 모든 고교생이 휴업이어서 학교를 완전히 비워 10만여명의 재수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일 치러지는 모의수능 때는 이들도 등교해 빈 학교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출신 학교에 찾아가 모의수능을 치르기를 꺼리는 데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공부하는 재수생이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따기는 이렇게 해요" 29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열린 '어린이 1일 구강체험 학습'에 참가한 동림동 '아이세상'유치원생들이 간호사의 지도로 이를 닦고 있다.

Weather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Gyeonggi, and Jeju.

건조주의보 속 산불 잇따라

고흥·곡성·완도서 소나무 등 태워

전남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29일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낮 12시55분께 고흥군 남양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400그루 등 임야 1ha를 태우고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이날 12시51분 곡성군 옥곡면 설옥마을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3대와 공무원, 소방대원 수백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당시 해당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던 데다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진실 동생 최진영 자택서 목 매 자살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약 1년6개월 만에 동생 진영(39)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영씨는 29일 오후 2시14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3층 다락방에서 전기선으로 목을 매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진영씨의 어머니와 고인의 후배 정모씨로, 정씨가 고인의 어머니에게 "형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연락해 두 사람이 진영씨의 자택을 찾아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씨는 오후 2시 46분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시신은 이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세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Advertisement for '수능 키워드는 수리영역·EBS' (The key to the exam is Mathematics and EBS). I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thematics and EBS materials for the upcoming exam.

Large advertisement for 'KLS (Korea Leisure Service)' featuring an outdoor fitness facility. The ad includes the slogan 'Energize your Mind & Body' and '생활체육의 새로운 문화' (New culture of lifestyle sports). It also features a website URL www.kls.or.kr.